

반도체 6사, D램 가격담합 피소

캘리포니아와 1억7300만달러 지급 합의 ... 불법적 가격책정 혐의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6사가 D램 가격담합으로 피소됐다.

이에 따라 6개 반도체기업들은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7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6월24일 하이닉스를 비롯해 Micron, NEC, Infineon, Elpida, Mosel Vitelic 등 6사와 합의에 도달했다.

브라운 총장은 “소비자, 학교, 정부 사무실에 판매되는 컴퓨터 장비에 사용되는 칩의 가격을 담합하는 불법적 계획에 연루됐다”면서 합의금의 규모는 불법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기업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32개 주정부와 집단소송에 참여한 개인 원고들도 합의를 따를 예정으로 6사는 앞으로 2년간 원고들에게 합의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은 2006년 반도체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D램 가격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총장은 조사결과 6사의 판매담당 직원과 임원들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비밀정보를 교환했으며 회동을 통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5>